

2022

2022.09.02

Newsletter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23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ans 3:23

01 HIS Message



02 Devotion



03 HIS Spotlight



04 General News



05 ES News



06 MHS News



07 Dormitory News



08 Counselor's Office News



09 Library News



10 Nurse's Office News



HIS Message



By 서지훈 | 중고등 학생 디렉터

Ms. Ji Hoon Suh · MHS Student Life Director

한동의 숲길을 걸으며...

Taking a Walk in the Forest Path of Handong...

지난 여름방학 동안 5명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제주도 캠핑트립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둘째날 남자 선생님들은 한라산 등반을 하였고, 저와 윤영실 선생님은 샬려니 숲길 12.5Km를 걸었습니다. 샬려니 숲길은 제주의 숨은 비경 31곳 중 하나로 삼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숲길입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숲길에서 만나는 나무와 풀들은 얼마나 푸르고 싱그러우며 지저귀는 새소리는 또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요! 숲길을 걷는 내내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에 감탄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모이면 학교와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로 늦은 밤을 지새우고는 합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지를 가도 '여기로 캠핑트립을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 보일 때면 아이들과 봉사로 무엇을 나눌지 고민하게 됩니다. 숲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이 나뭇잎으로 무엇을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새소리를 녹음해서 음악을 만들게 할까?' 등의 많은

During the past summer vacation, five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went to Jeju Island to prepare for the Camping Trip. On the second day, the male teachers climbed Mt. Halla, and me and Ms. Young Shil Yun and I walked 12.5Km along the Saryeoni Forest Trail. The Saryeoni Forest Trail is one of the 31 hidden scenic spots in Jeju. How green and fresh the trees and grasses we met along the picturesque forest road were and how beautiful the sound of chirping birds was! We marveled at everything we saw and heard during the walk.

When our teachers get together, we often spend the night talking about the school and our students. Whenever we go on a trip with my family, we often think, 'It would be a great place for a camping trip.' Also, whenever we see a place in need of help, we think about ways for us and our students to help them with such as community service. While walking in the forest, we asked many questions such as 'What can

질문들을 던지며 걸었습니다. 특히 저와 윤영실 선생님은 음악과 미술을 가르치기에 동물들과 식물들을 예술적인 면으로 바라보고 표현하려는 관점이 있어서 그런지 더 신나게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시간 동안 2만 2천보를 걸으며 점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숲길은 마치 한동의 우리 아이들 같다...!’

각기 다른 동식물들이 숲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각자 다른 모양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름을 틀린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하며 높여주어 학교에서 안정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학생들이 한동글로벌학교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우리가 한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해주신 하얀 도화지와 비어있는 악보 안에 또 어떤 그림과 음악을 채워나갈지 새삼 기대되고 설렙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실망하거나 힘들 때도 있겠지만 매일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사로서 샬러니 숲을 닮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예술 작품임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전시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시끌벅적한 아이들의 소리와 함께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닐 한동의 숲길에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students express with these leaves?’ and ‘Shall we have students make music by recording the sounds of the bird?’ In particular, since Ms. Yun and I teach music and art and share a point of view that views and tries to express animals and plants in an artistic way, we seemed to have a more exciting conversation.

As we walked 22,000 steps in 3 hours, we gradually came to one thought:

‘This forest road is just like our children in HIS...!’

We felt that we should help our students more so that they can feel secure and peaceful at HIS as they do not judge one another’s differences but discover, acknowledge, and praise one another’s strengths in our community, just like various animals and plants enjoy the peace in the forest.

The second semester has started and new students have joined the HIS family. I look forward to what picture and music we, who were created according to His image, will fill in the white drawing paper and empty sheet music that He has given each of us in the community of HIS. There will be times when we feel afraid, disappointed, and overwhelmed. I hope that we will open the morning with prayer and experience God’s grace and presence everyday. Also, as a teacher, I realize that teaching and supporting our students to understand that they are God’s masterpieces and to present and perform their lives beautifully and wonderfully is to please God and manifest God’s kingdom.

I lift up my gratitude, praise, and glory to God today as I start another day in the forest of HIS where I will run busily here and there in the energetic sounds of our students.

Devotion



By 오영준 | 중고등 성경 교사

Mr. Youngjoon O · MHS Bible Teacher

야훼는 생명입니다

YAHWEH is Life

2008년, 마술사 데이빗 블레인은 수중에 17분 4초 동안 숨을 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평균 30초에서 2분 간 숨을 참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놀라운 기록이라 여겨집니다.

숨을 쉬는 일은 매일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다행히도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루에 약 26,000번의 호흡을 합니다. 만약 숨을 쉴 때마다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활동에 신경 쓸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다 해도,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바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더 짧고 빠른 호흡을 내쉬게 됩니다. 심하면 1분에 20번 이상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집중력과 에너지 또한 감소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몸이 안정적일 때에는 호흡이 더 길고 깊어집니다. 편안한 상태에서는, 1분에 6-8 번의 숨을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깊은 숨을 쉬도록 스스로 훈련해본다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에너지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에너지의 90%는 숨 쉬는 방법으로부터 결정됩니다.

In 2008, the magician David Blaine did the unthinkable by holding his breath underwater for 17 minutes and 4 seconds. This is an amazing feat considering that the average person is able to hold their breath between 30 seconds up to 2 minutes.

Breathing is such a critical part of our daily life, and fortunately, it is something we do automatically and unconsciously. On a typical day, you will take about 26,000 breaths. Now imagine if you had to remind yourself to breathe every time. Then you would not have time to do anything else.

No matter how busy we think we are in life, we are never too busy to breathe. When we are stressed, we will take shorter and faster breaths. Stress can cause you to breathe over 20 times a minute. But by doing so, your concentration and energy level also decreases.

But when you are relaxed, you will tend to take longer and deeper breaths. Being in a relaxed state, you can comfortably take 6-8 breaths per minute. By training yourself to take deeper breaths, you can actually reduce your stress level and gain more energy. In fact, 90% of your energy comes from how you breathe.

고등학교 시절, 저는 달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천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흡입기를 휴대하여 심호흡을 내쉬기 어려울 때마다 사용해야 했습니다. 땀 때마다 천식 발작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제가 실천한 방법은 호흡하는 리듬을 단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숨. 들숨. 날숨. 날숨. 반복.

이러한 리듬으로 숨을 쉬다 보니, 저는 조금씩 더욱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중력이 흐려질 때면, 이 호흡의 리듬이 깨졌습니다. 그 때에는 폐가 수축하며 무리하지 말라는 몸의 신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호흡과 같이 우리 삶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그분을 위한 시간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리듬을 찾아 개발하며 꾸준히 연습하고 지켜야 합니다. 종종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아 그분이 나의 호흡과 같이 필수가 될 때, 오히려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50:6을 함께 봅시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말 성경)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말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대문자로 LORD라는 호칭은 YAHWEH를 의미합니다. 한국어로 YAHWEH는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로 YAHWEH는 YHWH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Y - Yod

H - Heh

W - Vav

H - Heh

When I was in high school, I used to enjoy running. But there was just one problem. I had asthma. That meant that I had to carry an inhaler just in case I found it difficult to take in deep breaths. To avoid getting an asthma attack while I was running, one trick I learned was to find a rhythm to my breathing.

Inhale. Inhale. Exhale. Exhale. Repeat.

By following this rhythm of breathing, I was able to run further and faster. If I lost focus, I would break the breathing pattern. And when I did, my lungs would feel tightened and I had a tendency to not push myself.

Like breathing, Jesus is our true source of life. That is why we must never be too busy to not make time for Him. We need to find a spiritual rhythm and stick to it. Sometimes, it may feel as if we do not have time to spend time with Jesus in prayer or in reading Scripture. But reality is, if we keep Jesus first in our life, so that He becomes as important as breathing, we will find more time and energy to do our other tasks.

Let's take a look at Psalm 150:6.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It is interesting that the psalmist said that
we praise the Lord when we breathe.

Whenever you see the word LORD in capital
letters, it is referring to YAHWEH.

In Korean, YAHWEH is 여호와.

In Hebrew, the word YAHWEH is
made up of four letters YHWH:

Y - Yod

H - Heh

W - Vav

H - Heh

히브리어 문자상으로, 이 네 글자는 숨 쉬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YAHWEH를 정확하게 발음할 시, 들숨(YAH)과 날숨(WEH)의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호흡의 소리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시편 기자가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말의 의미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루에 우리가 내쉬는 26,000번의 호흡이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도록 창조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호흡으로 생명을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안에, 우리는 생명을 발견합니다.

호흡이 길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힘과 에너지를 더욱 얻게 됩니다. 여호와와 이름을 더 길고 깊게 부를수록, 우리는 역시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호흡법을 개발하면, 우리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들이마시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할 매일의 습관을 실천하면, 우리의 몸은 강건하여지며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호흡으로부터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삶의 리듬을 찾으시고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야. 웨. 야. 웨. 반복.

In the Hebrew alphabet, these four letters are breathing sounds. If you were to pronounce YAHWEH correctly, it would sound like a person who is inhaling (YAH) and exhaling (WEH).

It is fascinating that God's name is the exact sound of a breath. Perhaps this is what the psalmist meant by praising the LORD with our breath. It could be that God designed us so that in order to live, we must say the name of YAHWEH 26,000 times a day.

With our breath, we find life. In the name of YAHWEH, we find life.

The deeper and longer we breathe, the more strength and energy we will find. The deeper and longer we praise the name of YAHWEH, the more strength and energy we will find.

By finding a breathing pattern, we can take in more energy and put less stress on our body. By finding a daily pattern to praise the name of YAHWEH, we will gain more energy and experience more peace in our body.

Life begins and ends by praising the name of Yahweh with our breath. May you find your rhythm of life in the name of the Lord, and in doing so, find life to the fullest!

Yah. Weh. Yah. Weh. Repeat.

HIS Spotlight





김소중 교사

Ms. Sojoong Kim

10B 담임, 중고등 사회 교사

10B Homeroom Teacher, MHS Social Studies Teacher

Q. 자라온 배경과 HIS로 오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Please share your background and how you came to HIS.

저는 속초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시절 한동글로벌학교를 처음 만났습니다. 한동글로벌학교에는 선생님, 친구들과 나누는 진솔한 교제가 있었고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다채로운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교육을 경험하며 배움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교육자가 되어야겠다는 소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였고, 기독교사 양성트랙을 이수하며 교육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의 모교인 한동글로벌학교에 돌아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우고 성장한 곳에서 가르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I was born in Sokcho and attended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during my high school years. At HIS, I could have genuine conversations with my teachers and friends and experience various activities that helped me find the true me. Especially, I experienced the joy of learning through Christian education and found my dream to become an educator as a follower of Christ. So I started studying people and society and developed my passion for education by completing the Christian Teacher training program. It is God's grace to be led to my alma mater after graduating university. I am grateful, and thankful again, to be able to teach where I learned and grew up.

Q. 선생님이 하시는 일과 이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어떤 것인가요?

What kind of work do you do and what do you expect through it?

7학년 사회, 10학년 통합사회, 12학년 사회문제탐구, 12학년 주제탐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저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하게 변화시키는 이 세상의 체인지 메이커들이 되기를, 사회 문제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등학교 때 2년간 학생회를 했던 경험을 되새기며 학생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한동의 선한 문화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 am currently teaching 7th grade Social Studies, 10th grade Integrated Social Studies, and 12th grade Inquiry of Social Problems. The key to social studies is to learn how to see the world. I expect students to be able to see with the right Christian perspective through my classes. Also I hope that they become change-makers of various social issues, and followers of Christ who can reach out to neighbors who need help in social problems.

I am also the teacher in charge of the Student Council, out of my experience in the Student Council during 11th grade. I look forward to the Student Council playing the key role of passing on the good cultures of Handong, and students voluntarily building up a better school culture in the future.

Q.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눠주세요.

Do you have any prayer requests?

1.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교사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2.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부족함 없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건강을 허락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Please pray for me :

1. To be a teacher prepared in prayer and
2. That God provide me sufficient wisdom, strength, and health to teach students



General News

2022-2 신임교직원

New Faculty & Staff in 2022-2

2022-2 교육실습생 소개

2022-2 Student Teachers Introduction

여름방학 중 학교시설 환경 개선

School Environment Improvements during the Summer Vacation

교장 취임식

Principal Inauguration Ceremony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Faculty & Staf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 Education

2023 입학 설명회

Admissions Information Day

포항 극동방송 '사랑의뜰안' 출연

Pohang Far East Broadcasting's 'Garden of Love' Live

2022-2 신입교직원

New Faculty & Staff in 2022-2

① 중고등학교 · Middle & High School



앤드류 김 | Mr. Andrew Kim

7A 담임, 중고등 성경 교사 7A Homeroom Teacher, MHS Bible Teacher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7A 담임교사와 함께 7, 10, 12학년 중고등 채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한동글로벌학교 공동체에 저희 가족을 포함하여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올해에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한 학기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Hello, I will be the homeroom teacher for 7A, Bible teacher for 7th, 10th and 12th in addition to sharing God's Word during MHS chapel. I am so blessed to be part of HIS and I thank God for bringing my family to be part of this wonderful school and community. I look forward to meeting all of you and pray that all of us can grow and mature as Kingdom Agents this year. May we all live lives that honor, glorify and are pleasing unto the Lord, God bless!

전공 음악 (피아노), 목회학 석사
경력 은누리교회 부목사 (영어 사역)

Major Music (Piano), Master of Divinity

Experience Onnuri Church Associate Pastor (English Ministry)



오영준 | Mr. Youngjoon O

중고등 성경 교사 MHS Bible Teacher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3-5)

Don't act out of selfish ambition or be conceited. Instead, humbly think of others as being better than yourselves. Don't be concerned only about your own interests, but also be concerned about the interests of others. Have the same attitude that Christ Jesus had. (Philippians 2:3-5)

전공 목회학 석사, 청소년 상담 석사
경력 청소년 목회 사역 20년

Major M.Div, MA in Youth Counseling

Experience 20 years of youth pastoral ministry



이병욱 | Mr. Byung-Wook Lee

8B 담임, 중고등 수학 교사

8B Homeroom Teacher, MHS Math Teacher

전공 화학공학, 경영학 석사, 교육심리학 석사
경력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 IT 스타트업 공동창업자, 외국계 은행 여신상품 담당 및 해외영업, 반도체 엔지니어

Major Chemical Engineering, MBA, MA in Educational Psychology

Experience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Teacher, IT Start-up Co-founder, Foreign Bank Credit Instruments Manager and Overseas Sales, Semiconductor Engineer

우선, 믿음의 선배로서, 아이들을 공감해주고 이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학창시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수학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졸업 후 세상에서 모든 결정의 근거가 되는 숫자의 중요성과 숫자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제 의와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수행하려 합니다. 저를 한동글로벌학교로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First, as a senior of faith, I would like to empathize with the children in Christ and help them enjoy their school days. Also, as a math teacher with various experiences, I want students to learn the importance of numbers and guide them to be able to interpret them, because it is the fundamental standard of decisions made within the world. However, I seek to do this not by my strength but by God's grace. I am grateful that God has led me to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김지연 | Ms. Ji Yeon Kim

중고등 과학 교사 MHS Science Teacher

안녕하세요? 한동글로벌학교에서 일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 학기인만큼, 학생들과 교직원 분들과 함께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reetings! It is an honor to work in HIS. As it is my first semester here, I am looking forward to growing together with the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I pray that we may glorify the Lord through the teachings and studies within this school. God bless everyone.

전공 생명과학, 미국 및 국제법

Major Life Science, US & International Law



홍소라 | Ms. Sora Hong

중고등 음악 시간강사 MHS Music Part-time Teacher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 학생들과 함께 이해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하고 섬기겠습니다.

I would like to share with students about the beauty and goodness of music. I will do my best on teaching and serving so that students fall in love with God and music.

전공 음악

Major Music

② 초등학교 · Elementary



박정미 | Ms. Jung-mee Park

초등 정보·컴퓨터 시간강사

ES Technology Part-time Teacher

전공 전산통계(전산심화)

경력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포항제철초등학교 근무

Major Computation and Statistics
(Focus: Computation)

Experience Teacher at Pohang Jecheol Jigok Elementary School, Teacher at Pohang Jecheol Elementary School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기술 분야에서 무엇이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인지 알아가며, 현재 배우고 있는 기술이 어떻게 우리 주위의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아이들과 생각해보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In a field of rapid developments, I will guide the students to think about what is valuable in technology and how to serve our neighbors and to show God's love using technology.

③ 생활관 · Dormitory



김도경 | Mr. Do Kyung Kim

생활관 교육간사 Dorm Parent

전공 신학 기독교교육 상담 리더십

경력 순천남부교회 부목사, 호주 318 YWAM 간사, 글로벌선진학교(음성) 생활지도교사

Major Theology Christian Education
Counseling Leadership

Experience Suncheon Southern Church Associate Pastor, YWAM Secretary of Australia 318, 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GVCS) Life Guidance Teacher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공동체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관에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면서 영성 지성 인성을 겸비하여 지구촌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I am grateful for being led to a community of building God's kingdom agents. Please pray that our students in the dormitory keep safe and grow to become global servant leaders with balanced spirituality, academic abilities, and character and that I care and pray for them with a paternal heart and joyfully serve them in prayer. I love you and God bless you!



조복임 | Ms. Bok Im Cho

생활관 교육간사 Dorm Parent

전공 목회학 석사
경력 부목사**Major** Master of Divinity**Experience** Associate Pastor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시 116:12)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 저 또한 주께서 맡기신 이들을 주 예수님께 하듯 섬기기 원합니다.

“How can I repay the LORD for all his goodness to me?”(Ps 116:12) As I think upon this verse, since we have received the grace of salvation as a gift, I also hope to serve those he has sent to me as Christ has loved me.

2022-2 교육실습생 소개

2022-2 Student Teachers Introduction



에단 라지 셀바선더 | Ethan Raj Selvasunther

영어 English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에단 라지 셀바선더입니다. 현재 한동대학교 4학년으로 재학중이며 제 전공은 영어와 교육학입니다. 제 목표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Hello, My name is Ethan Raj Selvasunther and I come from Malaysia. I am a senior in Handong Global University, currently majoring in English and Education. My goal is and has always been to be a teacher that will help students achieve their fullest potential and share God's love with them.



백승주 | Baek Seung-Ju

사회 Social Studies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2-2학기에 HIS로 실습을 가게 된 백승주입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17학번으로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저의 전공은 국제지역학과 글로벌한국학입니다. 이번 실습 동안 사회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m Baek Seung-Ju, and I'm going to have a practicum in HIS this semester. I'm a senior in Handong university now, and I'm majoring in International studies and Korean education. I'm going to teach social studies in the upcoming practicum. I will do my best with a sincere and humble heart. I hope to learn a lot and grow more through this time. Thank you.



송다연 | Dayeon Song (Belle)

영어 English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16학번, 25살 송다연입니다. 영어교과로 HIS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좋아하고 다음세대에 관심이 많아서 영어 선생님이 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는 것을 돕고 함께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는데, 특별히 한동대학교 교수님들께서 마음을 모아 설립된 HIS에서 실습하고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HIS실습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취미는 영화를 보는 것과 산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습기간 동안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같이 산책을 하면서 아이들을 알아가고자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조금은 낯을 가리고 부끄럼도 많지만, 사랑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Hello, I am HGU student, Dayeon Song. (You can call me Belle.) I am 25 years old. I will be doing practicum as an English teacher in HIS. I am interested in languages and the next generation, so my dream is to be an English teacher. My dream is for children to talk about God in languages and grow up well in God. I met Jesus in HGU first, so I especially wanted to do practicum in HIS which HGU professors founded with their will in God. I am also interested in watching movies and taking a walk, so during the practicum, I am looking forward to watching movies with students and teachers, having conversations with them, and taking a walk. I am a little bit introverted and shy but am looking forward to growing up in God with beloved students and teachers.

이예슬 | Yeseul Lee

사회 Social Studies (Geography)



HIS 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HIS에서 교생 실습을 하게 된 이예슬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사회-지리 과목을 맡게 되었고, 11학년 반 담임 선생님을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교육도 관심이 많아 초등학교 수업들도 많이 참여하고 경험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마주하고 가르치는 건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학기 HIS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붙잡고 열심히 배워서 신앙적으로도, 교사 역량적으로도 모두 성장하는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조만간 만나요:)

Greetings, HIS teacher and students! I'm Yeseul Lee, and I'm going to do teaching practice at HIS this semester. I will take charge of the middle school Social Studies-Geography course and assist the 11th grade homeroom teacher. Personally, I am interested in elementary school education, so I wish to participate and experience in elementary classes as well. Currently, I am pretty nervous and worried since this is my first time teaching students face to face at the school. Nevertheless, I will hold onto all the opportunities to learn at HIS and try hard to make it a semester that grows both spiritually and in terms of teacher competency. Thank you all and see you all soon :)

이지민 | Jimin Lee

미술 Art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4학년 이지민입니다. 저는 이번 가을 학기에 한동글로벌학교에서 현장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한동대학교를 들어와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 교사를 할 수 있는 TEP 교사 트랙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마지막 수업인 현장 실습을 한동글로벌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실습을 통해 기독교 교사로써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소통해야하는지 배우고 경험하길 기대합니다. 한동대학교에서 보내는 마지막 학기에 좋은 기회로 한동글로벌학교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m Jimin Lee, a 4th year student majoring in Visual Design and Product Design at Handong Global University. This fall semester, I will be doing my field practice at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Ever since I was in high school, I had a strong interest in education, so when I entered Handong Global University, I applied for the TEP Teacher Track Program, where I could become a teacher using my major. As with the final class of the program, I decided to do my field practice as an art teacher at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Through the field practice, I expect to learn and experience what kind of heart and attitude one should have when teaching and communicating with the students as a Christian teacher.

I am very happy and excited to have the opportunity at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during my last semester at Handong Global University. Thank you.



By **한병철 | 행정실장**

Mr. Byungchul Han · Business Director

여름방학 중 학교시설 환경 개선

School Environment Improvements during the Summer Vacation

2022학년 여름방학 동안 다음과 같이 환경개선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 생활관 화장실 및 샤워실 리모델링
- 교실 4개소 85인치 전자칠판(삼성 Flip3) 및 칠판보조장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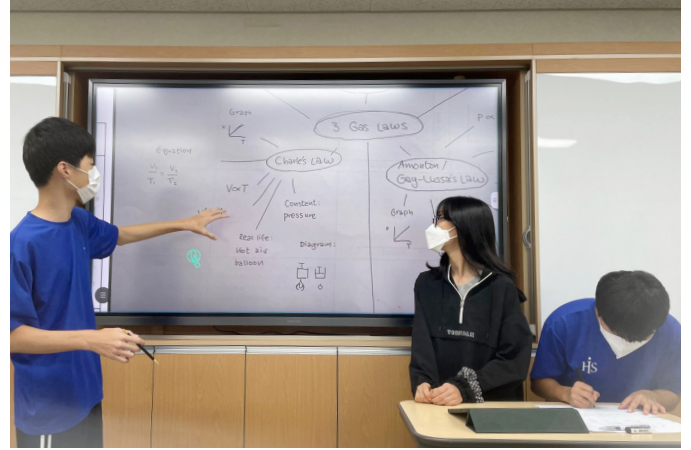
전자칠판 및 칠판보조장 설치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칠판 1대 455만원, 칠판보조장 1개 420만원)

The school environment improvements were made during the summer vacation as follows:

- Dormitory bathrooms and shower rooms were remodeled.
- The 85-inch electric boards (Samsung Flip3 Interactive Display) and wood ancillary board cabinets were installed in 4 classrooms.

To support us in installing electric boards and ancillary board cabinets in more classrooms, please see the following. (4,550,000 KRW for one electric board, 4,200,000 KRW for a set of ancillary board cabinet)





후원계좌

기업은행 158-081297-01-111 (예금주 : 한동글로벌학교)

문의

054-260-1731 | 한병철 행정실장 | jeremy@his.sc.kr

Bank account

IBK 158-081297-01-111 (Account Holder: 한동글로벌학교)

Inquiries

054-260-1731 | Byungchul Han,
Business Director | jeremy@his.sc.kr



교장 취임식

Principal Inauguration Ceremony

By 이은규 | 중고등 진로부장

Mr. Eunkyu Lee · MHS Guidance Team Leader

이번 백하민 학교장 취임식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동글로벌학교에서 오랫동안 교감선생님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 가운데 학교장으로의 자리에 순종과 기쁨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또한 몽클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취임식 중에 백하민 교장선생님을 한 편의 시로 소개드리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해 이번 소식지에 글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고 싶습니다.

품었을 뿐

애써 몸을 바꾸진 않았어

차가운 건 차갑게

뜨거운 건 뜨겁게

이 시는 저희 학교 '이희정 선생님'께서 출간하신 시집의 '보온병'이라는 제목의 시의 일부입니다.

The Principal Inauguration Ceremony of Dr. Hamin Baek, the new principal, was a very meaningful time. As I watched as a host during the inauguration ceremony, it was a touching moment for me as well, knowing how he had served as vice principal for several years and now called as the principal, starting with obedience and joy. When introducing Principal Dr. Baek, I wanted to introduce him with the following poem.

I just embraced but

I didn't try to change my body

What is cold as cold

What is hot as hot

This poem is a part of a poem titled 'The Thermos' in a collection of poems published by our school librarian, Ms. Hee Jung Lee.

이 부분에 제가 본 교장선생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그대로

나에게 맡겨진 자리 그대로

교장선생님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학교의 상황을 맞으시면서도 그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 그대로를 온전히 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을 향해 달려가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번의 취임식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취임식에서는 특별히 많은 내빈분께서 함께 자리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학교법인 이사장이신 이재훈 이사장님 뿐만 아니라 지역 포항극동방송을 담당하시는 송옥석 지사장님, 정인숙 피디님, 최준영 피디님 등 많은 분들께서 축하를 위해 먼 길을 한걸음에 달려와주셨습니다. 이재훈 이사장님께서 '요나단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주시고,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 앞에서 학교장 임명사와 교기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최도성 한동대학교 총장님, 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님, Peter Lee ACSI 한국 사무총장님의 축사가 있었으며, 고등학교 학생들의 뜨거운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HIS Song을 함께 부른 후 이재훈 이사장님의 축도로 아름답게 한동글로벌학교 백하민 학교장의 취임식을 마쳤습니다. 백하민 교장선생님께서 본인의 결단을 많은 청중 앞에서 선언하며 엄숙하지만 활기찬 취임 연설을 마치고 함께 방문한 많은 내빈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뜻깊은 자리에서 사회자로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감사했었습니다.



If I add to this part while thinking about the
appearance of the principal, I would like to add:

As was given to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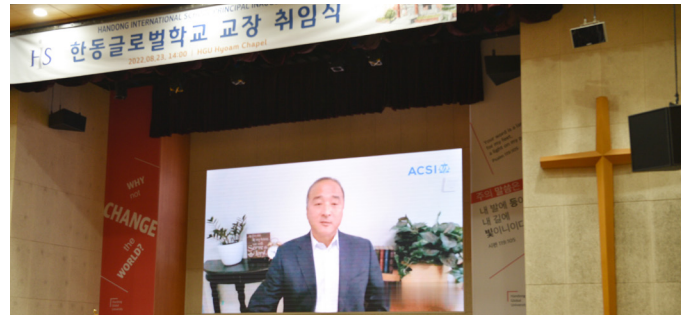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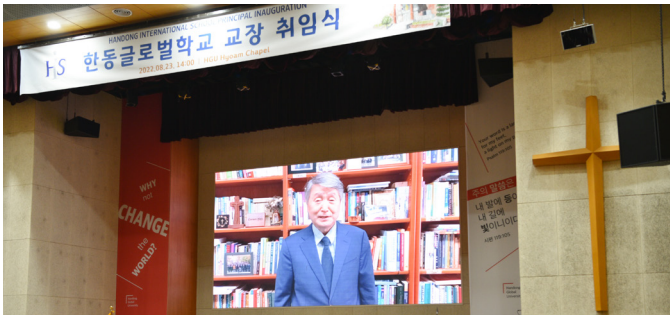
As was in the place assigned to me

The principal Baek seems to be a person who, despite facing so many school situations from 2013 until now, tried to embrace the situations completely and run towards the goal that God gave him, rather than complaining and resenting about the situations. So, personally, the inauguration ceremony had great meaning to me, too.

A lot of special guests attended and brightened the ceremony. Not only Rev. Jaehoon Lee, chairman of the board of trustees, but also Director Mr. Ok-seok, Director, PD Jeong In-suk, and PD Choi Jun-young from Pohang Far East Broadcasting and others came a long way. Chairman Jaehoon Lee gave a speech under the title of 'Jonathan's Leadership' and delivered the appointment remarks and school banner in front of students and parents.

It was followed by congratulatory speeches by Dr. Dosoung Choi, President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Dr. Sangjin Park, Director of the Christian School Education Research Center, and Mr. Peter Lee, National Executive Director of ACSI. Finally, after singing HIS Song together, the beautiful HIS Principal Inauguration Ceremony of Dr. Hamin Baek ended with the benediction from Chairman Jaehoon Lee. Principal Dr. Hamin Baek gave a speech to the audience, and after his solemn but energetic inaugural speech, he spent time greeting our school's special guests. It was an honor and gratitude to be able to host the event in such a meaningful place.





교기 이양 School Flag Presentation



By 이지원 | 보건 교사

Ms. Jiwon Lee · School Nurse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Faculty & Staf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 Education



8월 9일 교직원들의 CPR 교육이 있었습니다. 응급환자의 급성심장정지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 등 실제 상황을 대비하여 한 명 씩 실습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연습하면서 심폐소생술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긴 시간의 개별 연습으로 육체적으로 지칠 수 있었으나, 교직원들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네' 하시면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진지한 모습으로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학교에서 안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든든했습니다.

On Aug 9th, faculty and staff participated i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 Education. They took turns in practicing CPR and AED simulations to help a patient with cardiac arrest. It was time for us to learn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CPR education. While it took more time than expected, participants remarked how it wasn't as easy as it seemed to be, yet listened carefully. With the faculty and staff proactively practicing throughout the session, it was nice to see how they cared for safety in the school.

By 김미경 | 중고등 입학
Ms. Mikoung Kim · MHS Admissions

2023 입학 설명회

2023 Admissions Information Session



2023학년도 초, 중, 고 입학설명회를 8월 20일(토)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와 8월 27일(토) 한동대학교 오디토리엄에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만에 입학설명회에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갈 소중한 동역자를 만나서 학교의 정체성, 교육과정, 입학전형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We held the 2023 Admissions Information Sessions on Aug 20(Sat) at Yangjae Onnuri Church and on Aug 27(Sat) at Handong Global University Auditorium. It was a meaningful time in which we could meet students and parents in person after three years due to COVID-19. We had time to meet precious partners who will build the kingdom of God together and to introduce HIS's identity, curriculum, and admissions process, etc.





특히, 참석하신 부모님들 중 한 분은 신수진 학모님 간증과 학생들의 찬양을 통해서 큰 감동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과 포항(Youtube 라이브 방송 겸함)에서 행사를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입학설명회에 참여한 모든 교직원과 재학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In particular, one parent shared how she felt a strong presence of God and was moved by the parent testimony and the student choir. We are grateful how God safely protected us during the events and finished without a hitch. Also, we would like to thank all staff and faculty along with students who served for the sessions.



By 서지훈 | 중고등 학생디렉터
 Ms. Ji Hoon Suh · MHS Student Life Director

포항 극동방송 '사랑의뜰안' 출연 Pohang Far East Broadcasting's 'Garden of Love' Live



백하민 교장선생님은 8월 24일(화) 포항극동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사랑의 뜰안(정인숙PD)’에 생방송으로 출연했습니다. 기독교 교육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배우고 생각했던 경험을 토대로 다음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기성세대인 부모가 가져야 할 자세와 함께 기독교 교육의 방향성과 내용으로 은혜롭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On Aug 24th (Tue), principal Dr. Baek made a live appearance on Pohang Far East Broadcasting's 'Garden of Love'(PD Jeong In-suk). Based on his experience as a professional Christian educator, it was a meaningful time sharing how parents should prepare our children, the next generation, as kingdom agents along with Christian education.



방송 듣기 | Listen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호흡이 있는 성령피어다 할렐루야
 Let us praise the LORD!



ES News

ess

은유
gentleness

절제
self-control

Welcome to
Elementary Office
Knock • Count to 3 • 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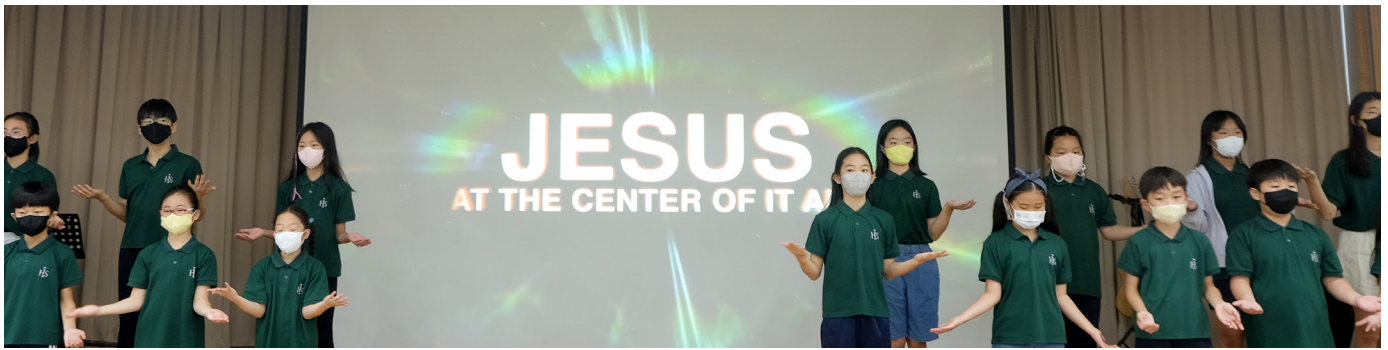
개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Opening Ceremony & Orientation

05

By 박에스터 | 초등 디렉터
Ms. Esther Park · ES Director

개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Opening Ceremony & Orientation



8월 16일날, 여름 방학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을 볼 수 있어 반가운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백하민 교장 선생님의 메시지로 2학기 개학이 시작되었고, 2명의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학교 곳곳을 방문하며 선생님들께 학교의 전반적인 규칙을 교육 받았습니다. 또한 안전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간에 참여하였습니다.

It was so great to see students back from summer vacation on August 16th, 2022. We started the 2nd semester with Principal Dr. Baek's message about the Kingdom of God and welcomed two new students. Afterwards students visited various parts of the school in teams to review the school rules. Students also participated in safety drills and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MHS News



개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Opening Ceremony & Orientation

학생 팀 활동

Student Team Activities

홈액데이

Homeroom Activity Day

2022-2 HIS 정규 동아리

2022-2 HIS Clubs List

06

Are you in the Kingdom of God?

Are you experiencing the Kingdom of God?

By 최세연, 중고등 교무 디렉터 | Ms. Sei Yeon Choi, MHS Academic Director

개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Opening Ceremony & Orientation



여름 방학을 끝내고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난 학생들은 'Are you in the Kingdom of God?', 'Are you experiencing the Kingdom of God?'이라는 신임 교장선생님의 질문으로 2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큰 환호성과 박수로 2학기에 편입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재학생들로 인하여 첫 시작의 낯섦이 함께하는 설렘으로 바뀌는 것 같아 우리 학교의 매력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학생회의 소개와 다짐들이 2학기의 생활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고,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안전 교육 등을 통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After the summer vacation, students started their new semester with the questions by the new principal, 'Are you in the Kingdom of God?', 'Are you experiencing the Kingdom of God?' Students also welcomed new teachers and transfer students with applause, which gave a smile on our faces. The new student council introduced themselves and shared their resolutions, and students prepared the new semester with student violence prevention and safety education.



또한 오후에는 팀별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죽천 해변까지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학교 안팎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건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2학기 학교생활을 통해 훌쩍 더 자라 있을 아이들이 기대되는 하루였습니다.



In the afternoon, we wrapped up the day with team activities and community service at the Jukcheon beach. It was an exciting first day of school, with students participating in various activities with their bright appearances and shining eyes, making us anticipate another semester of growth.



By **곽창민 | 중고등 영어 교사**
Mr. Changmin Kwak · MHS English Teacher

학생 팀 활동

Student Team Activities

중고등 SA (Special Activities) 시간에 학생들은 팀 모임에서 팀과 특별한 활동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동 전, 팀원들을 더 잘 알기 위해 각자 간단한 자기소개를 할 때 자신의 장점 2개와 단점 1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다음, 팀 내에서 영화 명장면을 하나 뽑아 함께 패러디 사진을 찍었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가장 비슷하고 실감나게 표현한 팀을 소개합니다!



원본사진 Original Pictur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ad a special team activity during the SA (Special Activities) time. In order to get to know the team members better before the activity, they briefly introduced themselves by presenting 2 strengths and 1 weakness. Later, each team chose a famous movie scene, and mimicked the scene by taking a picture. Here is one of the best pictures created by all team members!



By 서지훈 | 중고등 학생디렉터
Ms. Ji Hoon Suh · MHS Student Life Director

홈액데이

Homeroom Activity Day

지난 8/19(금) 중고등학교에서는 홈액데이를 실시 하였습니다. 홈액데이는 Homeroom Activity Day로 각 홀룸별 친구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우정을 쌓을수 있는 특별한 홀룸의 날을 의미 합니다. 방학동안 보고 싶었던 반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편입생과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함께 게임도 하고 서로 가까워질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2학기에도 더욱 하나가 되는 신나고 즐거운 여러분의 홀룸이 되길 바랍니다.

On Aug 19th(Fri)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ad Homeroom Activity Day. It is a special day where students get to know each other through various activities. They spent time playing games together and getting closer to old and new friends and teachers. I hope it will be an exciting and enjoyable homeroom in which students will become even more united in the second semester.



Dormitory News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

The Kingdom Community, One Body of Jesus Christ

Dorm Parents 소개

Introducing Dorm Parents

시설 리모델링

Remodeling Facilities

07

By 김경란 | 생활관

Ms. Kyeong-Lan Kim · Dormitory Director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

The Kingdom Community, One Body of Jesus Christ

2학기가 시작된 첫 주일에 생활관 열린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생활관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부름받았습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실천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인내하고 용서하는 공동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HIS 생활관 공동체를 꿈꾸어 봅니다.

On the first Sunday of the second semester, we held an open worship service in the dormitory to God. Dr. Baek delivered a message titled 'a community experiencing the kingdom of God'. Dormitory students are specially called to become one body of Jesus Christ. To encourage the practice of love, which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we engage in community training to be patient with and forgive others every day. Through this, we dream of becoming a HIS dormitory community where we can experience the kingdom of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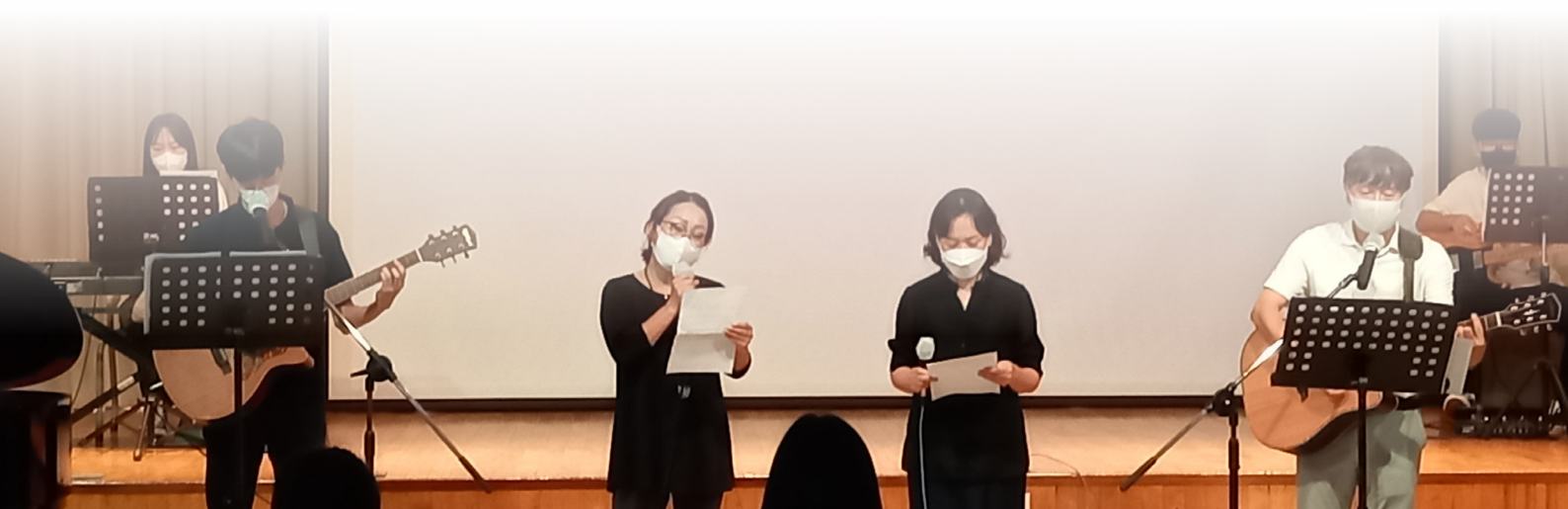


Dorm Parents 소개

Introducing Dorm Parents

이번 학기에 믿음1관에 조복임 간사님, 소망관에 김도경 간사님이 생활관 교육간사로 섬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In this semester, Ms. Bok Im Cho (Faith Hall 1) and Mr. Do Kyung Kim (Hope Hall) are now serving as dorm parents.



생활관 학생들의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하시기에 준비되신 목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학생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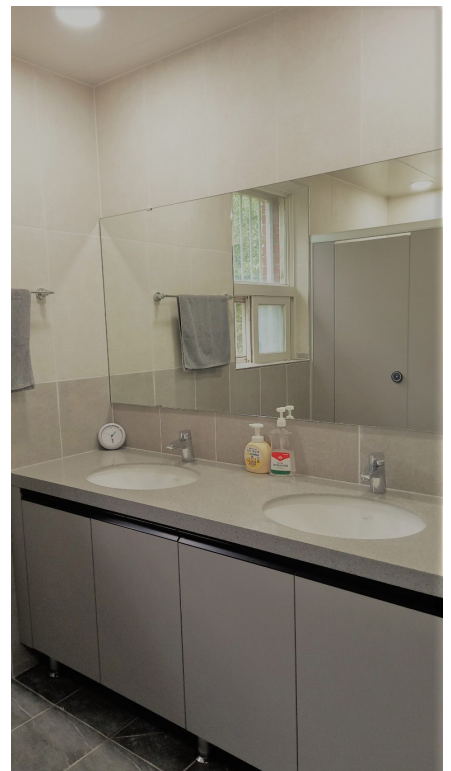
Thank God for sending the shepherds who are ready to play the role of a mother and a father for dormitory students.

A father's heart to his children, a child's heart to his father.

We hope that our students will be healed, restored, and built up in love.

시설 리모델링

Remodeling Facilities



이번 여름방학 때 사랑관과 믿음관의 화장실과 샤워실 전체를 리모델링하였습니다. 그레이톤 타일은 안정감을 주고 세면실 아래에 싱크대 크기의 수납장도 있어 물품을 정리하기에 좋습니다. 샤워실 칸막이도 설치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호텔같다고 하며 기뻐합니다. 큰 금액을 들여 공사하기로 결정해주신 교장 선생님과 다른 교무위원들 및 추진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During this summer vacation, the restrooms and shower rooms of the Love and Faith Halls were remodeled. The gray tiles give a sense of stability and there is also a sink-sized cabinet under each washroom, which provides space for organizing things. Shower cubicles were also installed. The students say it's like a hotel and they are happy.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Dr. Baek and the other school leaders who decided to carry out the project with a large amount of money and to all those involved in the project.

Counselor's Office News

교사 대상 상담실 교육 프로그램

Counseling Education Programs for Teachers

또래상담동아리 활동

Peer counseling club activities

상담실 멘토멘티제도 운영안내

Announcement about the mentor-mentee program by the Counseling Office

상담 활동 및 내용

Counseling activities and contents

08

By 장정은 | 상담 교사

Ms. JungEun Jang · School Counselor

교사 대상 상담실 교육 프로그램

Counseling Education Programs for Teachers

일자 2022년 8월 17일(수)

대상 초등학교사

내용

- ADHD 진단 기준 알고 ADHD 아동의 학습방법과 학교생활을 돕는 방법
- 선택적 함묵증 아동 진단기준과 치료방법
- 학생들과의 조화로운 소통을 위한 소통기법 알기
-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한 학습분위기 조성하기

Date August 17th, 2022 (Wed)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ntent

- Knowing ADHD diagnosis criteria and how to help studying methods and school life of ADHD children
- Diagnosis criteria of selective mutism and therapy method
- Knowing communication method for harmony with the students
- Creating a studying atmosphere to increase an ability to concentrate on through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일자 2022년 8월 17일(수)

대상 중고등 담임교사

내용 인지 재구조화의 일반원칙

- 안전지대 만들기
- 공감적 이해
- 좋은 구체화 기술
-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사고 패턴알기

Date August 17th, 2022 (Wed)

For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Content General principles for cognitive reconstruction

- Making a safe place
- Empathic understanding
- Better actualization skills
- Learning thought patterns that cause psychological pains



또래상담동아리 활동

Peer Counseling Club Activities

❶ 1학기 또래상담활동

- 교육과정 솔리언또래상담 기본 프로그램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이수
- 이수증 수료 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2학기 또래상담활동 솔리언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으로 진행함

❷ 2학기 또래상담활동

- 솔리언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으로 진행함

❶ Peer counseling in the first semester

- **Curriculum** basic Solian peer counseling program
On August 3, 2022, peer counselors received
- **Solian peer counseling program certificate**
Hosted by Korean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 **Peer counseling in the second semester**
Students will proceed with the advanced
Solian peer counseling program

❷ Peer counseling in the second semester

- Students will proceed with the advanced
Solian peer counseling program

상담실 멘토멘티제도 운영안내

Announcement about the mentor-mentee program by the Counseling Office

❶ 멘토

친구나 후배의 학업을 도와주고 싶은 학생들에게 멘토 신청을 받습니다. 멘토 시간은 봉사시간으로 인정됩니다.

❷ 멘티

학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멘티 학생들도 신청을 받습니다.

❶ Mentors

We will receive applications from students who want to help other students with their school work. Time for mentoring will be counted as volunteer work hours.

❷ Mentees

We will also receive applications from students who are struggling with school work.

상담 활동 및 내용

Counseling Activities and Contents

상담을 신청한 학생들 중 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검사 해석을 해드립니다.

- MMPI 검사 및 해석상담
- SCT 검사해석상담
- TCI 검사 및 해석상담

We will provide test interpretation counseling to students who apply for any of the following:

- MMPI test and interpretation counseling
- SCT test interpretation counseling
- TCI test and interpretation counseling

Library News



여름 방학 과제 서평 및 독후감 소개

Summer Vacation Book Reviews

우리 학교 저자 및 가족 도서 소개

About Our School Authors and Family Books

8월의 신간도서

New Books in August

By 이희정 | 도서관 사서

Ms. Hee Jung Lee · Librarian

여름 방학 과제 서평 및 독후감 소개

Summer Vacation Book Reviews

여름 방학을 건강하게 보내고 온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가 활기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기보다 광대역의 소비자가 되도록 길들이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 우리 도서관에서는 미디어와 텍스트를 균형 있게 취해 '좋은 독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규칙적이고 건강한 독서를 통해 주님이 주신 나의 소명을 발견해 봅시다. 또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더 좋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교생이 참여한 여름 과제 중 몇 편의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The voices of our students who have spent the summer vacation in good health are lively. In the digital media era, where people are tamed to become broadband consumers rather than thinkers, our library is trying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eople can become 'good readers' by taking media and text in a balanced way. Through regular and healthy reading, we try to discover our callings from the Lord. We also hope to become better people who can share with our neighbors. Let's take a look at some of the summer assignments in which all students participated.

① 독후감 · Book Review

이름 조하경 (10C)

제목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 하나님의 목적은?

Name Hakyong Cho (10C)

Title "Before Saying There Is No God"

- What is God's purpose?

오래 전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며 주님의 인생이 곧 자신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다. 그러나 어느 샌가 인간은 스스로 이 관계를 끊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까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확연히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관계와의 영역을 하나 둘 씩 벗어나게 되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죄로 인식하고 있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을 돌아섰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한다. 하나님을 이루면 다음 단계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역에서 충분히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모든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포함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현재 인간이 소유하는 어려움 3가지를 풀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구원받을 길을 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고 풀 수 있는 확신을 주셔야 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고 싶어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본질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해야 한다.

Long ago, human beings maintained a peaceful relationship with God. They followed God's will and plan unconditionally, thinking that the life of the Lord was their own life. However, one day, humans ended this relationship by themselves. So we can clearly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God to this day. One by one, we get out of the realm of God's relationship, and today we recognize this as a sin. Because imperfect humans turned away from perfect God, there is a hole in humans that no matter how hard they try, they cannot fill it. Human beings are constantly longing for something. It is human nature to want the next step when one is achieved. However, even if human beings try to be saved themselves, they cannot be saved because they are sufficiently out of the realm of God. However, in spite of all this human fall, God loved us so much that He sent Jesus Christ to this earth. And Jesus Christ was crucified for people including me. The purpose of God sending Jesus Christ was to solve the three difficulties that humans currently have. He had to give us the assurance that God exists, that He gave us the way to be saved, that we could solve the problem

안타깝지만, 어릴 때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주님의 대한 신앙 열정의 최고치를 겪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어른이 되어 하나님을 돌아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청춘에 주님이 있었기에 주님도 결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계시는 3가지를 풀기 위한 그분 만의 계획에 그들이 쓰임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주님이 최종적으로 그들과 다시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하시겠지만, 주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실 때까지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 언제나 주님의 도구로 사용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주님이 내어 주신 숙제라고 생각한다. 나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머지않아 나의 인생에서 주님의 기르심을 받고 부르심과 보내심에 응답해야 할 차례이다.

without questioning Him. God wants to make Himself known. We must live as Christians who know this essence. Unfortunately,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people who served God a lot when they were young and experienced the peak of their faith and passion for the Lord at some point turn to God as adults. As I read this book, I realized that these kinds of people would eventually become beings used by God. Because the Lord was there in their youth, the Lord will never forget them. God thinks that they are being used in His own plan to solve the three things God is solving. Of course, the Lord will eventually form a peaceful relationship with them again, but I think the Lord's task is to listen and live until the Lord calls them again, and to always be ready to be used and used as the Lord's tools. . It is time for me to prepare to be used as an instrument of the Lord. Soon it is my turn to respond to the Lord's upbringing, calling, and sending in my life.

이름 정혜나 (11B)

제목 『독고숨에게 반하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국내 최초 프로파일러의 연쇄살인 추적이)
- 범죄와 싸우기

Name Hena Chung (11B)

Title "If you fall for Dokgosom" Those who read the
mind of evil (Korea's first profiler's serial killer tracker)
- Fight crimes

이 책은 동명의 이름인 드라마 덕분에 알게 되어서 알게 되었다. 원래 범죄물 장르를 좀 흥미 있게 보는 편 이어서 이 드라마도 아주 재미있게 봤다. 그래서 책의 내용도 궁금해서 직접 구매를 해서 읽게 되었다. 재미있게 읽었다. 책은 권일용이 만난 연쇄살인범 3대 악질 범죄자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을 소개하고 있고, 권일용이 이들을 어떤 식으로 수사 했는지, 그들이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 범죄자들이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지도 아주 은근히? 은근히가 아니지... 자세하게 나온다. 그래도 책이어서 읽는 거는 괜찮았다.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구가 있다. "우리는 조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건을 수사하러 온 게 아니고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왔다." 는 이 문구가 인상 깊었다. 프로파일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알 수 있었던 문구 였던 것 같다. 그들이 왜 이 험한 범죄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는 지 알 수 있던 문장 이었던 것 같다. 책을 읽으며 악질 범죄와 맞서 싸우는 분들이 너무나도 대단하게 느껴졌다.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무서울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 주시는 것이 참 감사했다. 그런 악질 범죄자는 왜 생겨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히 내릴 수 없을 것 같다. 선천적인 것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I found out about this book thanks to the drama of the same name and read it. I'm usually interested in the crime genre, so I really enjoyed this drama. So, I was curious about the content of the book, so I bought it and read it myself. I enjoyed reading it. The book introduces the three major serial killers (I can't remember the names) that Kwon Il-yong met, and shows how Kwon Il-yong investigated them and how they committed crimes. It describes these criminals killed people very subtly...no, not subtly but in detail. Still, it was a good book to read. There is a phrase in the book that impressed me. " We are not investigators. I did not come to investigate the case, but to find out why this case happened." This phrase impressed me. I think it was a phrase that could explain why profilers exist in this world. It seems that it was a sentence that could tell why they were fighting these heinous crimes and what they were doing. As I read the book, I came to respect the people fighting against the heinous crimes. They are also human, so it must be very scary. I was very grateful that they were fighting for our people. Why do such malicious criminals exist ? It seems that the answer to this question cannot be clearly given. Are they born with a criminal mind? Is it created over time ? I hope one day I will be able to answer this question.

이름 최동하(8A)

제목 『정승제 선생님이야!』

- 수학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책을 읽을 때 들었던 생각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중에서 그동안 내가 사용했던 공부 방법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또 다른 잘못된 점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열심히 읽었고 결국 고쳐야 할 점과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얻었다.

첫 번째 팁은 선행 학습은 필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성적이 중요하니 앞으로 배울 것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고등 수학을 하는 어느 초등학생을 예로 들었는데 개념과 관련된 고등학생 문제를 맞췄지만 왜 그것이 답인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개념만 마구 외웠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배우고 있는 개념을 이해 한 채 넘어 가야지, 개념만 외우는 것은 옳지 못한 공부 방법이라고 했다.

두 번째 팁은 책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이다. 나는 문제집을 다 풀면 다른 책으로 옮기곤 한다. 하지만 그는 그 책을 여러 번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단지 문제를 많이 풀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서 실력을 탄탄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는 이 방법이 문제집 10권을 1번씩 푸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마지막 팁은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초를 모른 채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은 마치 알파벳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채 영어 공부를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동안 배웠던 개념은 앞으로 배울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 때, 전에 배웠던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는 책에 '수학은 재능이 있어야만 잘 하는 것이 아니다' 고 써 놓았다. 이 말은 누구나 마음만 먹고 공부를 한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앞으로 '나는 싹대거리야' 와 같이 나 자신을 원망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 와 같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학 공부를 할 것이다.

Name Dong-ha Choi (8A)

Title "This is Teacher Jung Seung-jae!"

- Studying math is like this!

When I read this book, I had a couple of thoughts. Among them, I found out that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the study method I had been using. So I read hard to see if there were any other mistakes, and eventually got some points to fix and some tips to help me with my studies.

The first tip is that prior learning is not required. In the meantime, grades are important, so I thought it was necessary to know what to learn in advance. But the teacher thought differently. He cite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who is doing high school math as an example. He answered a high school problem related to a concept, but he doesn't know why it is the answer. He said that the cause was that he just memorized the concept without understanding the concept. He said that we should move on with understanding the concepts we are currently learning, and that memorizing only the concepts is not the right way to study.

The second tip is to get the most out of the book. When I finish the workbook, I move it to another book. But he said the book should be used several times. This doesn't just mean solving a lot of problems, it's about resolving the problems you've been wrong about so far to solidify your skills. He said that this method is better than solving 10 problem books one at a time.

One final tip is to make sure you have a solid foundation. He said that studying mathematics without knowing the basics is like studying English without properly mastering the alphabet. This is because the concepts learned in the past are closely related to the concepts to be learned in the future. Therefore, when moving on to the next concept,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you have understood the previously learned concept well.

He wrote in the book, 'You don't have to be talented to do math well'. This means that anyone can get good grades if they put their mind to it and study. Therefore, in the future, I will study math with a positive mind like 'I can do it' without thinking, 'I'm stupid.'

이름 이예나(8A)

제목 『송아지』

-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

Name Yena Lee (8A)

Title "Calf"

- Beings who love and care for each other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다.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과 같이, 가족이나 친구나 선생님이나 아는 지인이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동물의 경우 자신의 진정한 가족은 아닐지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 동물이 우리의 가족인 것처럼 보살펴주고 대해줘야 한다. 황순원 작가님께서 쓰신 이 “송아지” 라는 책은 인물과 인물과의 관심, 보살핌 보다는 인물과 동물의 관심, 즉 같은 인간이나 가족이 아니지만 진심으로 대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본다. 그 점에서는 이 책이 자세히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송아지의 목을 돌이가 그러안고 있었다” 부분에서 돌이가 송아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친동생이나 형 누나도 아닌데, 심지어 어른들이 마음껏 부려 먹는 송아지인데도 불고하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모습이 너무 애뜻하고 한편으로는 송아지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웠다. 아무리 6.25 전쟁이 끝나고 다시 평범한 삶을 산다고 해도, 심지어 돈을 다시 모아 새로운 송아지를 산다고 해도 예전 송아지와 보냈던 시간이 많이 생각나 슬퍼하고 우울해 할 것 같은 돌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송아지에게 콩깍지와 물을 좀 주세요. 군인 아저씨 꼭 부탁드립니다.” 대목에서는 알수 없는 감정이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다. 돌이가 군인들이 이 송아지를 잡아먹을 거라는 것, 또는 이 송아지가 멀리 팔릴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송아지를 그렇게 놓아줄 수는 없었는지, 송아지를 놔두고 가면 생길 일을 뻔히 알고서도 쪽지를 남기는 모습이 안쓰럽고 불쌍했다. 6.25 전쟁이 딱 이 시대에 일어났었다. 6.25 전쟁 때문에 모두가 다 잘 알듯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야 했다. 현재까지도 떨어진 사람들과 매년 만나지도 못하는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다. 이 같이 자신의 친동생과 같은, 어떨 때는 형과 같은, 무엇보다 한 몸 같은 송아지를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곳에 놔두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평소 형제자매도 없어 심심해했겠지만 그나마 송아지 덕분에 즐거웠고 행복했을 시간이 계속 생각나 마음이 아파할 돌이를 생각하니, 또 자신의 유일한 친구이자 형제였던 송아지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 나중에 송아지가 돌이를 보고 달려가던 때에 송아지도 돌이와 함께 행복했다는

Most people have at least one of the things they cherish and love, whether human or animal or whatever. In the case of human beings, just as God gave the commandment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so you should cherish and love your family, friends, teachers, or acquaintances. In the case of animals, even if they are not their true family, we must take responsibility and care for and treat them as if they were our family. I think that this book, “The Calf,” written by Hwang Soon-won, focuses on people and animals rather than their interests and care, that is, they are not the same human or family, but genuinely treat and love them. In that respect, it can be said that this book explains it in detail. In the part “Dolli was holding such a calf's neck” part, I could feel how much Doli loved and cared for the calf. Even though he is not his own younger brother or older sister, even though he is a calf that adults eat to his heart's content, it was so heartbreaking to see him adoringly, sincerely, and generously sharing love, and on the other hand, the calf's death was very sad. No matter how much the 6.25 war ended and he lived a normal life again, even if he saved money to buy a new calf, he could feel Doli's heart, which seemed to be sad and depressed because he remembered a lot of the time he had with the old calf. “Give this calf some pods and some water. Soldier, please.” In the passage, an unknown emotion made my heart ache. Dole must have known well that the soldiers would devour this calf, or that this calf would be sold far. Even so, it was pitiful and pitiful to see him leaving a note even though he knew clearly that he could not let go of this calf like that, and what would happen if he left the calf. The 6.25 war had just happened at this time. Because of the 6.25 war, as we all know, countless people suffered damage and had to be separated from their loved ones. To this day, it was so heartbreaking and sad that I couldn't meet the people I was separated from every year. It breaks my heart to think that I have to leave a calf like my own younger brother, sometimes like an older brother, and above all one body, in a dangerous place where you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I was usually bored because I didn't have any siblings, but at least I keep thinking of the times when I was happy and happy thanks to the calf, and thinking of the child that hurts my heart, and thinking that my only friend and brother, the calf, must have wanted her to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던 형제와 같은 존재가 사라지니 얼마나 슬플까 생각하게 되었다.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좀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 요새는 애완동물을 자신이 스스로 키우길 원해서, 그저 재밌을 것 같아서, 심심해서 키우다가도 나중에 단순히 재미없다고, 귀찮다고 자신이 평생 돌보아야 할 애완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나도 어떤 물건을 쓰다가 별로 흥미가 떨어지면 가끔 버릴 때도 있었는데, 끝까지 송아지를 버리지 않고 살려주던 돌이를 본받아야겠다고 반성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모습을 고쳐야 한다. 어떤 것을 처음에 관심과 보살핌을 주기로 결정 했으면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주며 보살펴 줘야 하며, 단지 싫증 났다고, 재미없어서, 귀찮아서 그냥 책임감을 무시하고 버려선 안된다. 또 그 무엇에 대해 책임감이 없다고 해도,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욕을 하거나 뒷담을 해서는 안된다. 서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사랑해야 한다. 동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살피라고 주신 가족이다.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잘 살려 줘야 한다.

be happy, my heart breaks. Later, when the calf ran to see Dol, I could see that the calf was also happy with Dol, but in that part, I thought about how sad it would be to see the existence of a brother who loved and cared for each other disappeared. Overall, this novel seems to want to inform us that we have no choice but to face a rather sad and tragic reality. Nowadays, there are countless people who want to raise pets themselves, because they think it will be fun, and even if they are bored, they throw away their pets for the rest of their lives because they are simply not fun or annoying. There were times when I used to use certain things and when I lost interest in them, I would throw them away. In this beautiful world that God has given us, we humans, who live in an unbeautiful way, need to fix this. If you decide to give attention and care to something in the first place, you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it and take care of it until the end, and you should not just ignore the responsibility and throw it away just because it's proven, because it's not fun, or because it's annoying. Also, even if you are not responsible for anything, you should not swear or gossip about it because it has nothing to do with you. We must love each other in God's family, whether it be animals or humans. Animals are also a family that God has given us to take good care of. You have to look after it responsibly until the very end.

이름 백건우(G3)

제목 『화가들은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을까』

Name Geonu Baek (G3)

Title “Were Painters Popular from the Start?”

오늘 명화를 남긴 최고의 화가들이란 책을 읽었다. 엄마가 읽으라고 하셨는데 내용이 많고 책이 두꺼워서 읽기가 싫어졌다. 하지만 천천히 읽어보니 재미도 있었고 모르는 것을 많이 알게 되어서 책을 잘 읽은 것 같았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화가는 빈센트 반 고흐였다. 반 고흐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는데 런던 파리 등에서 미술품을 거래하는 화상이었다. 그리고 런던에서 선생님이로 일했고 벨기에에서는 선교사로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화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계속 그림을 그리던 고흐는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된 고흐는 자신의 동생과 같이 살게 되었다. 반 고흐는 자신의 동생이 자신 때문에 힘들 거 같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은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는 고흐에 대한 부분을 읽고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Today, I read a book called The Best Painters Who Left Famous Paintings. My mother told me to read it, but I hated reading it because it had a lot of content and the book was thick. However, as I read it slowly, it was fun and I learned a lot of things I didn't know, so I felt like I had read the book 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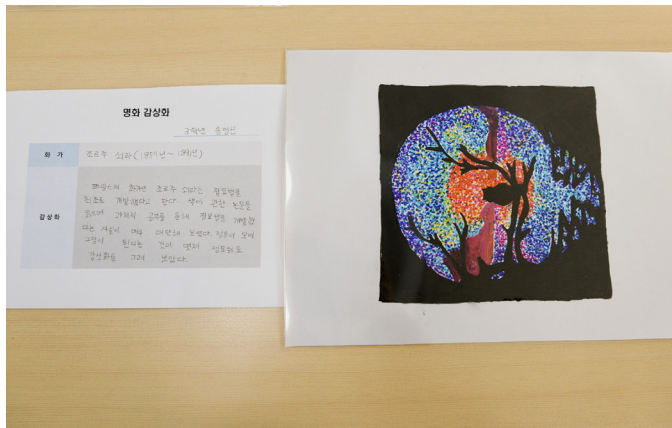
One of the most memorable painters was Vincent van Gogh. Van Gogh was born in the Netherlands and was a painter who traded art in London and Paris. Then he worked as a teacher in London and as a missionary in Belgium. Then one day, I decided to become a painter. Van Gogh, who continued to paint, was hospitalized due to mental illness. Van Gogh started painting again, and he lived with his younger brother. Van Gogh took his own life with a pistol because he thought his brother would be hard on him. I read the part about Van Gogh and even though I had great talent, I couldn't understand why he died.

스스로 죽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 37살에 스스로 죽지 않았다면 더 멋진 그림을 그렸을 것이고 훌륭한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었을텐데 많은 작품을 볼 수 없어서 아쉽게 느껴졌다. 많은 화가들의 모습에서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끝까지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아팠다.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림 그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란 것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모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나도 어떤 일이든지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잘 참아서 꿈을 이루고 싶다.

If I hadn't died at the age of 37, I would have painted more wonderful paintings and could have seen many great paintings, but it was a pity that I could not see many of them. It was a difficult and difficult environment for many painters, but it was heartbreaking to see them take their own lives without being able to endure it to the end. What I learned through this book was that I also realized that drawing a picture is not an easy task. However, I was able to see everyone working hard, and I also want to achieve my dreams by persevering with hard work and not giving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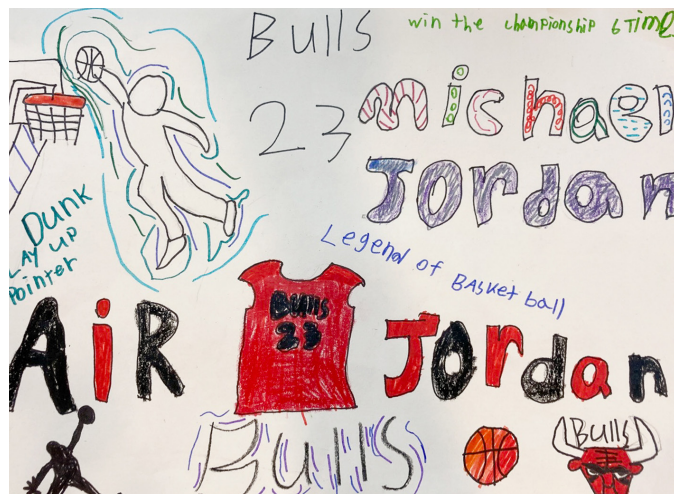
② 명화 감상화 • Painting Review

G5 송영준 Yeongjun Song | G3 송영신 Yeongshin Song



② 독후 감상화 • Book Painting & Review

G4 권유빈 Daniel Kwon



우리 학교 저자 및 가족 도서 소개

About Our School Authors and Family Books

『내 오랜 이웃의 문장들』(시인동네, 2022)

이희정 사서 선생님 신간 시집

“Sentences of My Old Neighbors”,

(Poet Neighborhood, 2022)

Librarian Heejeong Lee's new collection of poems



『내 오랜 이웃의 문장들』

이 시집은 겉으로는 자유시로 읽히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현대시조로서의 단아한 율격이 내장되어 있는 현대 시조입니다. 첫 시집은 첫사랑과 같아서 그 색이 오래도록 바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시를 읽고 쓰는 날은 나를 돌아보는 날이었습니다. 오롯이 자신에게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세상을 향한 사랑 속에 나의 구원을 꿈꾸며 나의 구원만큼 타인의 구원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학이 나의 진술과 타자의 고통 사이에 발생하는 거리 좁히기라 한다면 이것은 수많은 당신들에게 건네는 위안이자 그 어떤 외부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내면의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 많이 남은 길 위에 ‘내 오랜 이웃의 문장들’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밝은 빛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실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Sentences of My Old Neighbors”

This collection of poems read as free poetry, but if you look into the inside, they are modern sijos with an elegant rhythm. It is said that the first collection of poems is like first love, so the color does not fade for a long time. Reading and writing poetry was to reflect on myself. It was a time when I could focus on myself. And I dreamed of my salvation in love for the world and realized that the salvation of others is as important as my own salvation. If literature is to narrow the distance between your statements and the suffering of others, this will give comfort to many of you, and it also provides you with an inner energy that can fend off external attacks. I hope that 'The sentences of my old neighbor' will remain in people's hearts as a bright light for a long time on the road that is still left. I worship the Lord who's watching our lives from up there.



『바닥을 칠 때 건네는 농담』(이야기나무, 2019)

손창우 자전 에세이(김세윤 선생님 가족)

“Jokes Handed When Hitting the Floor”

(Story Tree, 2019)

Sohn Chang-woo(Kim Se-yoon's family)'s autobiographical essay

『바닥을 칠 때 건네는 농담』

이 책의 저자 손창우 작가는 우리 학교 김세윤 선생님의 자형분인데요. 이 책은 작가의 갑작스러운 시련에 응답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와이 가족 여행을 준비하던 작가는 갑작스러운 뇌종양 판정을 받고 비행기 티켓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1년 동안 입원과 수술, 방사선 치료와 재활을 거쳐, 건강도 회복해 모교 연세대에서 강의도 시작하고 여행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인생이 바닥을 칠 때, 벗어날 수 없는 늪이라고 생각했던 구멍에서 꽃도 피어나고, 작은 희망의 새도 날아오른다고. 그러니, 힘들어도 우아하게! 머릿속 종양 따위가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그 와중에도 행복하기를 주문한 병상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Jokes given when hitting the floor”

The author of this book, Son Chang-woo, is a brother-in-law of our school teacher Se-yoon Kim. This book is a record of responding to the author's sudden ordeal. The author, who was preparing for a family trip to Hawaii, was suddenly diagnosed with a brain tumor and had no choice but to cancel the plane ticket. After that, he went through hospitalization, surgery, radiation therapy and rehabilitation for a year. Later he recovered his health, began lecturing at his alma mater Yonsei University, and even went on a trip. When life hits the bottom, flowers bloom from the hole you thought was a swamp from which you couldn't escape, and a small bird of hope takes flight. So, gracefully even when it's hard! The book contains the record of a sick bed that ordered happiness in the midst of preventing a tumor in the brain from taking over his life.

8월의 신간도서

New Books in August

우리 도서관에서는 매일 실시간 구글 시트를 통해 <희망도서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도서관 소식에 링크가 공유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In our library, we are receiving <Book Requests> through a Google Sheet every day. Links are shared on Library News of the school website. We ask for your interest and support.



HIS 도서관

HIS Library website: <https://sites.google.com/his.sc.kr/library>

문의사항 Contact | 이희정 도서관 사서 (Ms. Hee Jung Lee) • heejunglee@his.sc.kr • 054-260-1742



Nurse's Office News



'귀'의 날
'Ear' Day

10

By 이지원 | 보건 교사

Ms. Jiwon Lee · School Nurse

'귀'의 날

'Ear' Day

매년 9월 9일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제정한 귀의 날입니다. 숫자 '구(9)'와 '귀'의 발음이 비슷하며, 귀의 모양과 비슷한 숫자인 '9'를 선택해 만든 귀의 건강을 지키는 날입니다.

귀는 단지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일 뿐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감각 역할을 담당하는 데요. 또한, 귀는 손상되기 쉬운 예민한 기관으로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September 9 is the Ear Day set by the Korean Society of Otolaryngology. It originated from the similar pronunciation of the number 'gu(9)' and 'ear'. The number '9' is similar to the shape of the ear. It is a day to protect the health of your ears.

The ear is not only the organ of hearing. It is responsible for the sense of equilibrium that maintains the body's balance. The ear is also a sensitive organ that is easily damaged and, once damaged, is difficult to recover.



귀 건강 관리법

Taking Care of Ear Health

① 가능한 귀에 손을 대지 않기

귀지는 외이도 땀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공기 중 먼지나 각질 등과 섞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귀 속에 외이도로 들어오는 이물질의 출입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① Refrain from touching your ears as much as possible

Earwax is made of a mixture of substances secreted by sweat glands in the ear canal and dust or dead skin cells in the air. It also protects the ear canal from harmful substances.

② 이어폰 대신 헤드폰 사용하기

최대 음량의 60% 이하로 하루에 60분 미만으로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난청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어폰인거 알고 계셨나요?

② Use headphones instead of earphones

It is recommended to use it for less than 60 minutes a day at 60% or less of the maximum volume. Did you know that earphones are the biggest cause of hearing loss?

③ 견과류(호두, 잣), 해조류(미역) 등 귀에 좋은 식품 섭취하기

또한 식습관을 싱겁게, 달지 않게, 카페인은 적게! 먹는 습관으로 귀 건강을 지켜봐요!

③ Eat foods that are good for your ears, such as nuts (walnuts, pine nuts) and seaweed etc.

Also, eat foods fresh, not sweet, and with less caffeine! Keep your ears healthy with your eating habits!

60-60 법칙

60-60 Law



60분 ↓
60mins



60% ↓
60%



HIS Connection
Archive

2019 - 2021

<https://bit.ly/3v2RN43>

너희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Romans 12:2





Renew
Our
Mind!